

끝을 아는 자 (마태복음 28:16-20)

오늘 우리가 불 말씀은 끝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가기 때문에 끝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언약이다. 이 끝을 알고 이것이 언약 되어 있는 사람은 응답 받는다.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다. 죽으시고 피흘리신 것이 근본인데, 그것으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의 끝을 알고 그것을 향해 사는 삶,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응답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선교이다.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끝을 아는 자는 정복하게 되어 있다. 모세가 그랬다. 사도바울도 그랬다. 렘넬트 7명도 다 그랬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개 딱 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복음으로 저주에 빠진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 말고는 가치 있는 것도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이 빵이 필요하겠는가, 돈이 필요하겠는가? 세상의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일에 인생을 드린 사람은 전부 승리하고 정복하였다. 사실은 인생 간단하다. 이미 믿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끝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선교지에 살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잇을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가? 미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원 끝을 위하여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사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봤냐 말해도 우리는 상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믿음도 주셨다. 그것으로 끝이다. 사람들이 묻는 것 필요 없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진짜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대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확실한 복음을 찾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해진다. 어중간한 인생은 어중간한 복음이다. 신자중에서는. 불신자는 관계 없는 말이다.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신자는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다. 그 사람이 복음이 선명하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그 사람의 복음이 능력이 있으면 인생에 능력이 나타난다. 기준이 복음이다. 그래서 간단하다. 정확하게 언약 잡으면 된다. 잘 안들어온다. 그래서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이다. 지속하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때 눈 열린다. 그러면 안 잡으려고 해도 잡히게 되어 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남미 두고 기도한다.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는다. 그것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가 항상 복음이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복음이다.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 모세나 바울 등 시대적 인물들이 다 그랬다. 우리는 미국, 남미, 렘넬트, 다민족 기도제목으로 잡고 있는 교회이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주일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선교주일, 아주 의미있다. 누구나 믿는 자의 인생의 것은 선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그 끝 선교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1. 끝을 아는 자

우리 인생의 끝은 선교이다. 그리고 이 끝을 아는 자는 자신과 세상을 정복했다. 모세는 가나안을 봤다.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 땅이 어디냐가 아니다. 하나님 앞

에서의 가나안이 무엇인지 모세는 이해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받아들이고 개인 언약이 되었다. 가나안은 모세 인생의 끝이었다는 그 말이다. 그 끝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끝이었다. 단 한번도 가나안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정복하는 중심에 섰다. 모세 때문에 광야의 모든 것을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일만 하면 지나면 다 죽는 그곳을 40년 살았다. 농사 한번 지은적 없지만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우물 한번 판적 없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명도 없었다.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와서 햇빛을 막아줬다. 밤에는 불기둥이 와서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동안 매일 그랬다. 전쟁을 해도 지는 법이 없었다. 어디를 가야 물이 있는 지를 하나님이 다 아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 그래서 목 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마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수시로 말씀을 주셔서 그 광야를 인도해갔다.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답을 너도 잡으라는 것이다.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을 향하여 가는 것. 끝을 알고 그것으로 언약을 잡고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는 못 간다고 하였다. 그 때에도 이 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죽기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끝은 세계복음화, 237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세와 함께 할 제자도 준비했다. 우리도 마음에 진짜 세계복음화 제자 준비하시기 바란다.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기생라합, 그리고 어른들은 다 죽고 밑에서 올라온 렘넬트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세계복음화, 이방인, 로마, 그에게 평생의 언약이었고 생명을 건 끝이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당연히 생명을 거는 것이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다 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이 끝을 포기도 안하고 양보도 안 한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단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생명 걸었으니까. 이것을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이 바라고 나아갔던 천국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도바울은 천국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는가? 천국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기준으로 산다. 사도바울은 가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수 많은 제자들을 붙이셨다. 이 일을 하라고. 사도바울 대신 죽을 각오를 한 보호자도 있었다. 전 재산을 그의 복음 운동을 위해 내 놓은 식주인도 있었다. 생명을 걸고 평생을 함께 사역한 동역자도 있었다. 그 동역자들은 목이라도 내 놓겠다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끝을 알고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끝이 내게도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 끝난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가 200-300년 내려갔다. 드디어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드디어 미국이 이 시대적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세계 복음화 일어났다. 새로운 문화도 탄생했다. 사도바울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 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었다. 헬라 문화, 유대 문화만 있었다. 기독교 문화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운동이다. 미국의 귀신 문화를 꺾어야 한다. 미국은 이 귀신 문화를 전세계에 퍼트리는 중심에 있다. 깨야 한다. 무엇을 깨나? 칼로 하나, 총으로 하나? 대포를 쏘면 되겠나? 복음으로 깨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시대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들어와서 발견되기 바란다. 그래서 시대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니까. 복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먼저 시대적인 복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오고 계신 것이다. 이 복음을 바탕으로 이 끝을

아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끝이 나의 언약이 되기 바란다. 세계 복음화 언약, 나도 잘 안되었었다. 수없이 들었는데, 맘대로 안되었다. 종이같으면 쓰고 잡으면 된다. 이것은 글자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잡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답이 뭔가? 그리스도. 죽으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때가 되면 눈이 열린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이 절대 안 열린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눈 안열리면 바보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응답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누리는 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다.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정시 기도

성경에 의하면 정시 기도는 세계를 바꾼다. 놀랍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계를 바꾼다고 수없이 많은 예를 성경에 들어 놓았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앓은뱅이었던 사람을 만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섰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버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다 아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그냥 죽어야 할 인간이었을 뿐이다. 수 많은 제사장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버렸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그는 그리스도이다. 언제 이것이 나타났는가? 정시 기도이다. 기도하라는 말이다. 기도할 때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바벨론 기적의 증인 다니엘은 최고의 정시기도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하던데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했겠는가? 그래서 다니엘 사자 굴에서 살아남았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하려 거기 빠져서 다 죽었다. 완전 역전이 일어났다. 정권 나라가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항상 총리였다. 나라는 고사하고 정권만 바뀌어도 끝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복음에 대하여 뜻을 정했다. 나는 안 먹는다.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는 정시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도바울은 전도를 기도로 하는 사람이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길이 막혀서 기도하는중에 환상을 보았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하였다. 하나님 뜻인줄 알고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가서 제일먼저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전도였다. 왜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하니까. 자기는 세계복음화 해야 하니까. 빌립보 복음화가 아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하고 이방인 전체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기가 이 자리를 떠나도 이 복음운동 지속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 손에 이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전도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른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우리가 수일을 유하다가, 몇일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수일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실때까지 기도한 것이다. 붙여주셔야 하니까 그 때까지 움직여 봐야 헛수고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캠프 하면 제자 붙는다. 우리는 전도 못한다. 기도 해도 대충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도바울이 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사람을 보내줄때까지 안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사도바울이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그 날도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16장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정해진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래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다.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루디아를 만났다면 제자 찾았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할텐데 아니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때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런데 앞과 약간 다른 것은, 루디아를 만날때에는 기도할 곳을 찾아 가다가, 여종 만날때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와 귀신들 그 사이에 이미 기도할 곳을 찾아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들린 여종을 만난 것은 기도할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가 아니고. 이 때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다. 바울은 이런 식이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진짜 하는가? 나는 응답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제자 붙여주라고 진짜 기도한다.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붙여주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라도 붙여주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이런 식이었다. 기도 전도.

나의 개인전도를 한번 분석해보라. 예를 찾아보면, 사도바울에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하였다. 로마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거기서 일어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바울은 전도를 기도로 하는 사람이었다. 전도자의 정시기도, 너무나 중요하다. 복음 가진 자의 정시기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그 동안 기도에 대한 많은 단어들을 거쳐왔다. 그 출발이 정시기도이다. 그 다음이 무시기도이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 정시기도이다. 언약기도라는 말도 있었다. 서밋타임이라는 말도 있었다. 다 기도이다. 24, 25, 영원, 깊은 기도, 집중기도,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만대를 세워라. 만대같은 기도이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만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그림을 가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많은 단어를 거쳐왔지만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 중요하다. 시간 자체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마음을 담고 진심을 토로할 개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만도 중요하다. 안하는 것에 비해서는 100프로 차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막 하는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기도는 하면 한것이고 안하면 안한 것이다. 하나님은 잘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 진심으로 자신을 토로하는 기도를 원하신다.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지속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를 지속을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는 것이다. 이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땅 끝에서 완성된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권세 있다. 복음의 권세가 기도를 통해 내 인생에 나타난다. 권세와 능력은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권세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다.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복음안에 약속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인생의 끝은 선교이다. 믿는 모든자의 끝이 선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끝을 아는 자는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